

**이데일리**

# 장하성 "코로나19 안정 후 우한서 한중 교류행사"(종합)

기사입력 2020-04-20 18:01 최종수정 2020-04-21 06:30

- 특파원 간담회서 주중 한국대사 취임 1주년 소회 밝혀
- "中, 내수 정책에 집중...韓기업 변화흐름 적응해야"
- "한중 기업인, 입국 간소화 구체적 논의 이뤄져"
- 삼성전자, 전세기 띄어 中에 인력 파견 추진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주중한국대사관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중 교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아쉽다는 심경을 전했다. 장 대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고 나면 가장 먼저 후베이성 우한에서 한중 교류 행사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대사는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1주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나는 직업외교관이 아니다"며 "중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구체적인 중국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외교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오려

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직원들과 올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계획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5개월 가까이 그냥 (지나)갔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 대사는 누구보다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힘써왔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 편지 등을 보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남은 기간에 기존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한중 기업 간 경제활동과 양국간 교류에 적극적인 노력해서 성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사는 특히 지난달 30일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회담에서 후베이성 우한이 완전히 정상화된 후 한국 상품전을 열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상품 세일즈와 교류 협력을 가속화 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며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중 수출 비중이 20% 미만으로 높지 않아 내수 경제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른 나라보다는 정책적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대차(005380)의 경우 내수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내놓고 있고, 삼성전자(005930)도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며 "변화흐름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서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서비스 투자협상, 중국과의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 정부가 자국과 상대국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격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패스트트랙) 방안에 합의했다고 장 대사는 밝혔다.

장 대사는 "조세영 외교부 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후 서로 검사증명서가 있으면 자거나 시설격리 하지 않고, 도착지에서 검사 음성 판정되면 경제 활동 하게 하는 조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양국을 오가는 비행편이 급격히 줄어들어 실제 인력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034220)가 광저우에 전세기를 띄운데 이어 삼성전자도 시안 반도체 공장에 기술진을 파견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장 대사는 전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23884>

---